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금 융 위 원 회

2015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5. 4.

기획조정관실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02-2156-961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신문사 빌딩 4층

1. 그간의 정책성과

1.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기반으로 금융규제 개혁,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등 창조금융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을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 기반 마련

○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산업 발전의 중장기 로드맵 '금융비전' 제시

○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법령·숨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

* 약 3,100건의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1,700건을 검토→ 약 700건 규제를 개선

□ TDB*, TCB 등 기술금융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술금융을 본격화

* '14년말 255개 민·관 협약기관에서 987만건의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23개 기관에 제공

○ 기술금융 도입(14.7월) 반년만에 8.9조원(14,413건)을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했으며 금리부담도 기존대비 0.4%p 경감

○ 기술금융박람회*,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 실시

* '2014 창조경제 박람회'(11.27~11.30, 코엑스)에 기술금융 특별전시관을 설치·운영



□ 불합리한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하고 은행권의 꺾기 관행 근절

- 제2금융권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고 패자부활의 기회도 제공
-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 관행 근절방안(‘13.10월)」을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꺾기 관행을 근절

□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하여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조성

- 기업성장 단계별 성장사다리펀드 2.6조원 조성, 중소·벤처전용 코넥스 개설(79개사 상장) 등 모험자본의 공급확대
- 코스닥의 독자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상장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코스닥 신규 상장전수 증가(‘12년 21건→‘13년 37건→‘14년 70건)
- 금투업 인가단위 간소화·절차 개선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자율 M&A 유도 등 증권업 구조조정을 적극 독려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7월·9월)」을 마련·추진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기여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14.5월)하고 사전인증 없이 ID·PW만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14.12월)
- 결제대행업체(PG)에 카드정보 저장방식 서비스를 허용(‘14.8월)하고, Active-X가 없는 결제환경 구축을 추진(‘15.3월 완료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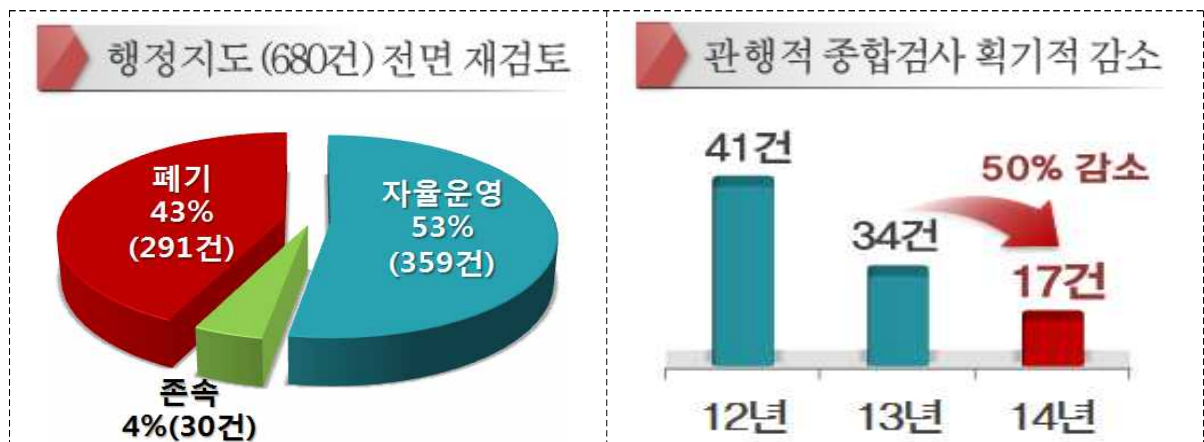
□ 정책금융기관들의 시장마찰 및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변화된 금융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13.8월)」 추진

* 산은-정금공 통합(‘14.12), 중장기수출금융·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 확대 등

2. 금융혁신 실천

◆ 창조금융 성과의 현장확산을 위한 「창조금융 실천계획(‘14.8월)」을 마련하여 보수적 금융문화의 혁신을 위해 노력

- 낮은 금융관행을 타파하고 금융현장에서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창조금융 실천계획(‘14.8월)」 추진
 - 창조금융의 성과체감을 위해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과제를 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혁신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14.9월 이후 5차례 회의 개최)
 -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은행권의 자금중개 행태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14.10월) · 시행(‘15.1월)
 -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제재를 원칙 폐지(‘14.11월)하고 위규·절차상 하자 없는 부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근절
 -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종합검사를 절반 이상으로 축소하고 부실여신 검사는 회사에 위임하는 등 사전예방식 감독을 정착
 -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경로를 일원화하고 행정지도(680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적극적·투명한 금융행정 구현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확립

□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자활 지원

○ '국민행복기금' 출범('13.3월)·운영을 통해 자활의지를 가진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과다채무부담 완화

* 국민행복기금 규모 및 지원 내역('14.12월 기준) : (채무조정) 34.1만명 약정 체결, (연체채무 매입·이관) 280.7만명, (전환대출) 5.9만명(6,760억원)

○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을 통일하고 복지·근로 등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연계지원(취업성공패키지 1,552건 연계지원)

□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14.3월)」을 마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유출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

○ 정보처리 수단·단계별 보호 강화, 정보보호 요청권 신설 등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및 불법정보 수요 차단조치 등을 마련*

*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4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기준(5월), 대출 모집인 내부통제방안(8월), 연락중지 청구(Do not call) 시스템(9월) 등

○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도입, 과태료·형벌 등 제재 상향으로 정보유출 억제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
(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통과('15.1.12일), 법사위 계류 중)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13.12월, '14.8·12월)」을 통해 금융회사의 피해예방노력을 강화하여 소비자피해 방지에 기여

○ 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노력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대폭 축소*

* 월평균 피해(건) : 스미싱 ('13) 2,480 → ('14.11) 425 / 메모리해킹 : ('13) 39 → ('14.11) 13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본인확인)를 모든 고객에게 전면시행하고 新입금계좌지정제(안심통장서비스) 도입

- 대부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39% → 34.9%)하고 중개수수료 상한(5%) 설정
 -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강화(시도지사 → 금융위·금감원)하고 자본금 및 인·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등록요건 등을 정비 추진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확립
 -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신설('13.8월)하여 총 33건의 금융권 불합리한 관행 등을 집중 발굴·개선
 - 금융회사內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정책 종합 계획'을 마련('14.12월)하여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제시
- 맞춤형 금융소비자교육 기반 마련, 공적 금융상담 활성화, 100세 시대 노후준비 지원 등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도모
 -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13.9월)」을 마련하여 금융교육 추진체계 정비,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등 공적 금융상담 채널을 확충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관리 등 종합적 상담 추진
 - 사적연금 활성화, 新보험상품 출시 등으로 100세 시대에 따른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보장



4. 금융시스템 안정

◆ 금융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안전한 금융투자환경 조성

□ 가계부채 연착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 강화('14.2월)

- 가계소득을 고려하여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유도

* 고정금리대출·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각각 40%까지 확대('14년 목표 20%)

- 금융권 자율 프리워크아웃* 지속, 바뀐드림론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14년중 2,695건, 314억원)을 통해 취약차주 부담 경감

* 상환기간 연장, 대출전환지원 등을 통해 '13.6월~'14.12월중 총 22.1만건(19.8조원) 지원

□ 기업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부실 사전관리 개선

-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재무구조평가 방식 개선, 관리대상계열 (약정채결 우려 계열) 신설 등 기업부실 사전방지 강화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단 주도의 효율적 구조조정 추진 기반 조성
- 「회사채 정상화방안('13.7월)」을 마련하여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14.12월 2,172개사 3.8조원)

□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투자여건 확립

- '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13.9월)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리 기한을 단축(평균 223일 → 153일)하는 등 금융시장 공정성 제고
- 특정금전신탁·파생상품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하여 시장 안정성 제고
-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악용하는 행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알선·중개 금지

□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사전에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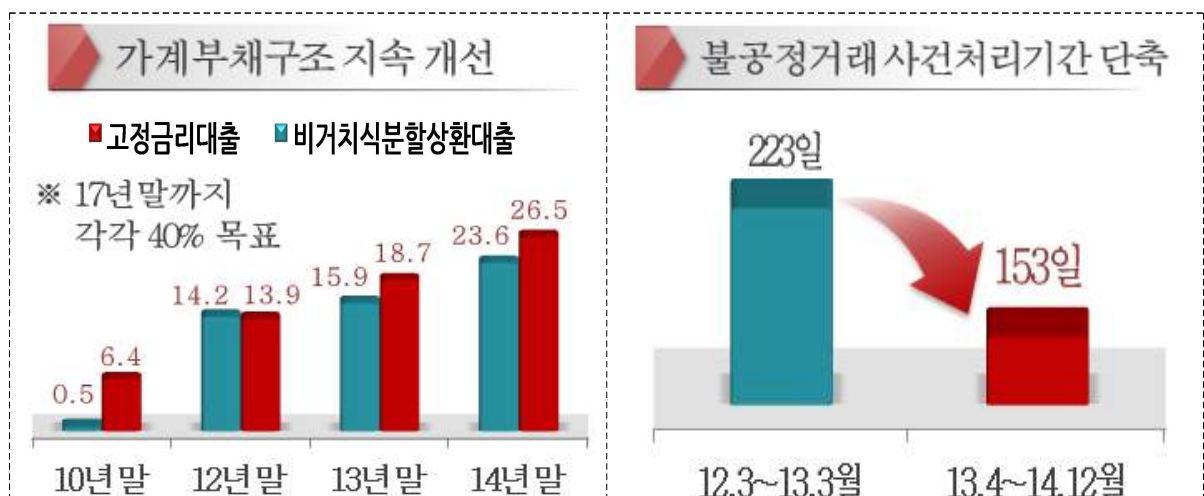
- (은행·은행지주)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15년)에 맞춰 조건부자본 증권 도입 등 충분한 자기자본 적립을 선제적 유도
- (보험) 연결 RBC제도 등을 도입하여 재무건전성 제도를 선진화
- (증권) NCR제도 개선, 레버리지제도 도입 등 건전성 관리
- (저축은행*·상호금융**)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으며, 상호금융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 '11년 이후 총 31개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

** 490개 중점관리조합을 선정하여 검사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정대출을 적발하여 조합원 보호조치를 조기 시행

□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 준법감시인 지위·권한 제고, CEO참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발표('14.8월)
- 지배구조 본연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13.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월)



2.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2015년 금융정책 여건

- ◆ 전반적인 국내외 실물부분 회복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변화로 국내 경제·금융부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기대감 속에, 美 금리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대내적으로 가계·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이 지연되고 금융산업 경영여건에 대한 하방위험이 지속될 전망
- ⇒ 금융시장 변동성, 민간부문 부채 수준, 금융산업 수익성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대응 추진

가 대외 리스크요인 및 전망

- '15년 세계경제는 당초 기대보다 경기 회복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 * 세계 성장률 전망(IMF WEO) : ('13년) 3.3% → ('14년) 3.3% → ('15년) 3.5%
 - '14년에는 유로존 디플레 우려, 日 소비세 인상 여파, 中 구조조정 지속 등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며 예상보다 회복세가 둔화
 - * '14년중 세계 성장률 전망 변화(IMF WEO) : (4월) 3.6% → (10월) 3.3%
 - '15년에는 美의 견조한 성장세와 함께 ECB·BOJ 등 주요국의 추가적 정책대응 등으로 꾸준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개선 기대에도 지역별로 불균형적 회복세가 예상되는 등 국가별 경기하방 리스크는 상존
 - 유로존은 확장적 통화정책 노력에도 獨·佛 등 주요국 수출 부진 등이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9월) 0.3% → (10월) 0.4% → (11월) 0.3% → (12월) △0.2%

- 중국은 부동산 위축 및 글로벌 수요 축소에 따른 수출 감소, 구조 개혁 지속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

* '15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비) : (OECD) 7.1%, (IMF) 7.1%

- 디플레 타개를 위한 日중앙은행의 적극적 양적완화 및 연기금 등의 투자확대로 엔화약세 흐름이 가속화·장기화될 가능성

* BOJ 추가 양적완화('14.10월) : 본원통화(80조엔) 및 국채매입(80조엔) 확대

* GPIF 자산운용계획변경('14.10월) : 국내주식(12→25%), 해외투자(23→40%) 확대

- 금융부문에서는 美 금리인상, EU·日의 공격적 통화정책, 급격한 유가 변동 등이 글로벌 변동성 확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내년 상반기 美 금리인상 가시화시 달러강세 가속화 및 일부 취약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 등 시장불안 촉발 가능성

* '13.5월 Fed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이후 주요국 주가변동폭('13.5.22~6.25)
: (선진국 MSCI)△7.4%, (신흥국 MSCI)△15.7%, (韓)△10.7%

- 또한, 최근 급격한 유가하락은 오일머니 위축, 일부 산유국 금융 불안 등을 유발하여 글로벌 자금흐름에 불확실성 가중

* 주요 산유국 해외투자 규모(억불) : ('06)5,000 → ('12)2,480 → ('13)600 → ('14)△76

* 러시아 금융지표('15.1.21일, 13년말대비) : (주가)△45.79%, (환율)+100.40%, (CDS)+415bp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어, 위기 발생시 여타 취약 신흥국과 차별화될 전망

* CDS프리미엄('15.1.21일, '13년말대비 bp) : 韓(2↓), 日(22↑), 中(17↑), 브라질(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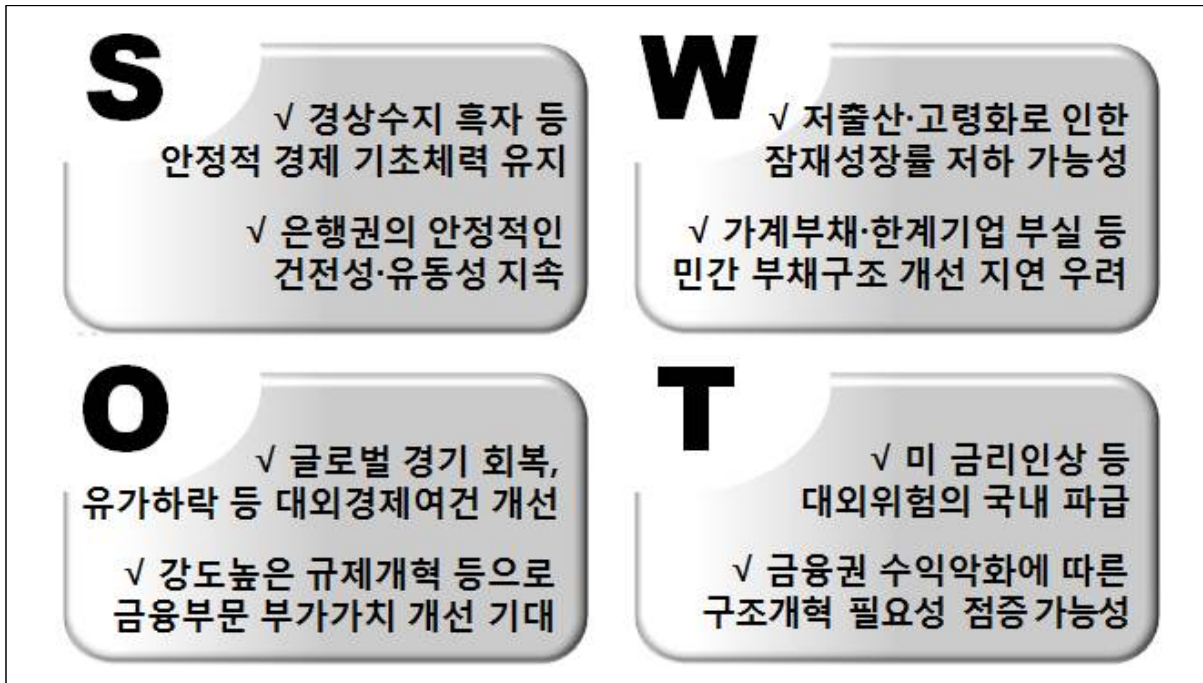
- 다만, 美·유로존·日 등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 등 대외 경제·금융 여건의 하방 위험은 상존

➡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외충격시 발생가능한 위기 파급경로에 대한 점검 지속

나 대내 리스크요인 및 전망

- 금융산업은 저축은행 구조조정('11년) 이후 건전성 측면의 큰 문제는 없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 직면
 - (은행) 저금리 기조로 이자마진 감소, 부실기업 대손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 기반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
 - * NIM(명목순이자마진) 추이(조원): ('11)2.30 → ('12)2.10 → ('13)1.87 → ('14.3Q)1.81
 - (보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역마진 가능성 등 경영효율화 필요성에 직면
 - * '14년중 점포수(7,300개, 9말기준): 353개 감소(△4.6%), 임직원수: 2,470명 감소(△3.9%)
 - (금융투자) 시장 전반의 활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수수료 중심의 취약한 수익구조 등으로 구조조정 압력 가중
 - * 자산운용사 ROA(총자산수익률) 추이: ('10)11.4% → ('12)8.5% → ('14.3Q)8.0%
 -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성장둔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우려
- 금융시장은 수년간 내부요인에 기인한 충격에 특별히 노출되지 않은 가운데, 민간부문 부채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현재 즉각적인 가계부채 관련 위기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
 - 기업부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업자금시장 양극화 등이 심화될 우려
 - * 이자보상비율 1미만 기업 비중: ('09) 30.5% → ('11) 33.9% → ('13) 38.8%

➡ 내수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하는 동시에 규제합리화 등 금융부문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 추진



□ 대내외여건 측면에서 강점(Strength) 및 약점(Weakness) 요인

- (강점)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한 가운데, 은행권 건전성·유동성이 안정적 수준을 지속 유지
- (약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가계·기업부문 부채구조 개선 지연 우려

□ 대내외여건 측면에서 기회(Opportunity) 및 위협(Threat) 요인

- (기회)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 기대, 유가하락, 달러대비 원화 약세 등으로 대외여건 개선 기대
 - 대내외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응한 강도 높은 규제 합리화 조치로 금융산업의 효율성·생산성이 제고될 가능성
- (위협) 美 금리 인상, EU·日 경기 둔화 우려, 급격한 유가 변화 등 대외 위험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파급·전이될 우려
 - 금융권 수익악화에 따른 구조개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

2. 2015년 금융정책 방향

- 창조금융과 금융혁신을 위해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전력
 - 금융혁신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을 쇄신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역동적 금융생태계 정착
 -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산업 도약을 위한 금융신뢰를 확립
 -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점검과 관리강화 등 위기로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 ⇒ 분야별로 3대 핵심과제 및 9개 실천계획을 현장 중심, 부처 협업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 핵심과제 1. 창조금융 성과확산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

- 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와 금융융합 추진
- ②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등 자금중개기능 강화
- ③ 금융개혁 지속 추진으로 금융부문 혁신과 경쟁력 강화

【 핵심과제 2.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

- ④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 ⑤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⑥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권 윤리규범 정립 등 신뢰 제고

【 핵심과제 3. 금융안정을 확고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⑦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정적 관리
- 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⑨ 대내외 리스크요인 대응 등 금융안정성 제고

1.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

(1) 조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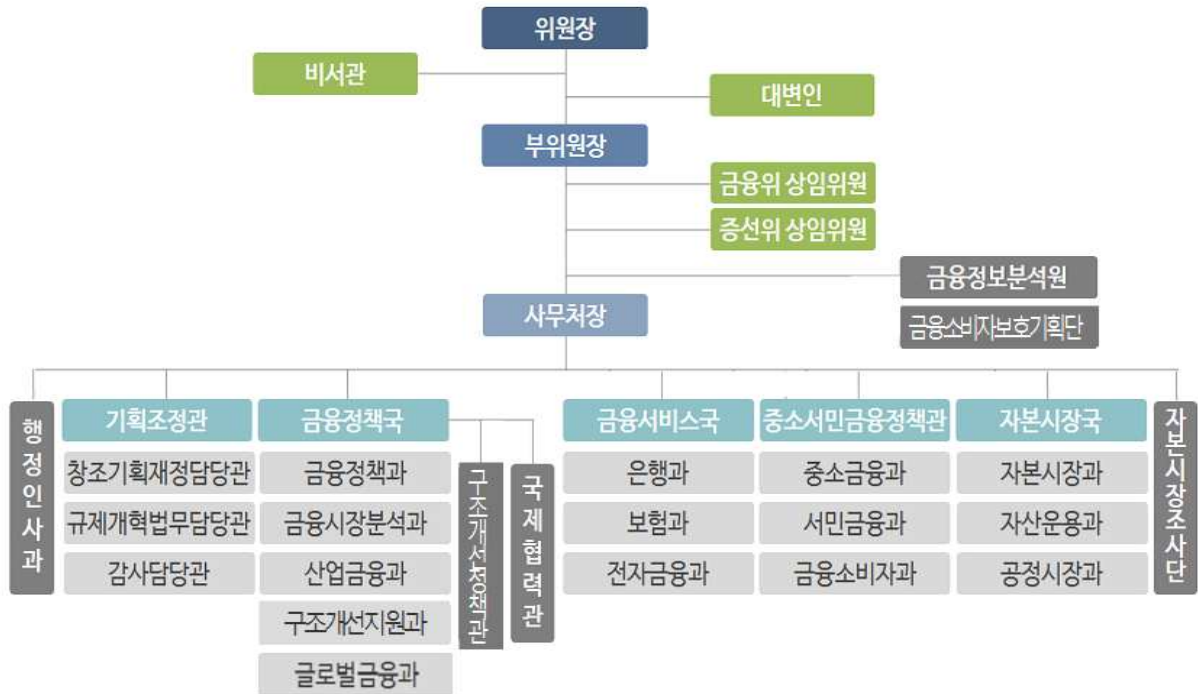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19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2) 인원 (정원 : 255명, 현원 : 272명, '15.4.21 기준)

	정 무 직	일 반 직	별 정 직	특 정 직	계
정 원 합계	2	242	3	8	255
(현 원 합계)	(2)	(254)	(3)	(8)	(267)
본 부	2	191	3	—	196
금융정보분석원	—	51	—	8	59

(3) 재정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14	'15	'16	'17	'18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2,064	3,304	12,921	9,027	8,345
(전년대비증가율, %)		60.1%	291.1%	△30.1%	△7.6%
○ 총액	250,384	359,396	426,612	339,297	351,293
(전년대비증가율, %)		43.5%	18.7%	△20.5%	3.5%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189	206	221	236	253
(전년대비증가율, %)		9.0%	7.3%	6.8%	7.2%
○ 기본경비	93	83	87	75	77
(전년대비증가율, %)		△10.8%	4.8%	△13.8%	2.7%
○ 주요사업비	1,782	3,015	12,613	8,716	8,015
(전년대비증가율, %)		69.2%	318.3%	△30.9%	△8.0%
□ 예산					
○ (총)지출	1,183	2,203	12,334	9,027	8,345
(전년대비증가율, %)		86.2%	459.9%	△26.8%	△7.6%
○ 총계	12,203	58,334	58,027	60,345	63,132
(전년대비증가율, %)		378.0%	△0.5%	4.0%	4.6%
【일반회계】					
- (총)지출	1,183	2,203	12,334	9,027	8,345
(전년대비증가율, %)		86.2%	459.9%	△26.8%	△7.6%
- 총계	12,203	58,334	58,027	60,345	63,132
(전년대비증가율, %)		378.0%	△0.5%	4.0%	4.6%
□ 기금					
○ (총)지출	881	1101	587	0	0
(전년대비증가율, %)		25.0%	△46.7%	△100.0%	0.0%
○ 총계	238,181	301,062	368,584	278,951	288,161
(전년대비증가율, %)		26.4%	22.4%	△24.3%	3.3%

구 분	'14	'15	'16	'17	'1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1,014	1,017	895	881	813
(전년대비증가율, %)		0.3%	△12.0%	△1.6%	△7.7%
【기술신용보증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24,998	26,127	24,989	26,477	23,191
(전년대비증가율, %)		4.5%	△4.4%	6.0%	△12.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15,134	9,066	11,581	11,318	17,181
(전년대비증가율, %)		△40.1%	27.7%	△2.3%	51.8%
【신용보증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55,742	58,219	59,648	64,505	58,213
(전년대비증가율, %)		4.4%	2.5%	8.1%	△9.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40,339	31,961	34,389	36,611	39,975
(전년대비증가율, %)		△20.8%	7.6%	6.5%	9.2%
【공적자금상환기금】					
-(총)지출	881	1101	587	0	0
(전년대비증가율, %)		25.0%	△46.7%	△100.0%	0.0%

구 분	'14	'15	'16	'17	'18
-총계	32,600	112,281	160,832	52,888	88,272
(전년대비증가율, %)		244.4%	43.2%	△67.1%	66.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총)지출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		0	0	0	0
-총계	68,354	62,391	76,250	86,271	60,516
(전년대비증가율, %)		△8.7%	22.2%	13.1%	△29.9%

※ '14년은 예산 기준, '15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요구 및 전망치를 사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설치법」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음
 - (임무)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전 도모, 금융소비자 보호”를 3대 임무로 설정
 - (비전) 정책비전을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4대 전략목표를 추진
 - ➡ **전략목표 I**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고 창조금융을 활성화한다.
 - ➡ **전략목표 II**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 **전략목표 III**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한다.
 - ➡ **전략목표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5년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선정
 - 4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3개의 성과목표 하에 24개의 관리과제를 선정
- 추진실적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13개 성과목표에 대한 16개의 성과지표와 24개 관리과제에 대한 36개의 성과지표를 각각 선정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13	16	24	36

성과 목표	관리과제	주관부서	국정기조 연계
I.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고 창조금융을 활성화한다.			
1.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금 정	국정 38-1
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금정	국정 38-1, 업무 7-1 지시 14-32-30
2. 기업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구조조정	
①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	업무 8-1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금 정	
①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장	국정 37-3 업무 9-1,2
4. 실물경제의 창조활력을 뒷받침한다.		산 금	국정 1
①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산금	국정 1-2 핵심 13, 업무 2-2
② 검사·제재 개선		제도	국정 28-5 핵심 14, 업무 6-3
③ 해외 금융시장 개척 기반 마련		글로벌	업무 3-3
④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		국협	업무 9-3
II.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금융권의 경쟁촉진 환경을 조성한다.		은 행	국정 28
①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은행	국정 28-3
② 불공정거래 제한 및 규제차익 해소		보험	국정 28-2,4
2. 미래 유망 금융서비스를 육성한다.		전 금	
① 핀테크산업 육성		전금	국정 1-5, 핵심 12, 업무 1-3, 지시 14-32-35
② 연금포털 구축		연금	

성과 목표	관리과제	주관부서	국정기조 연계
3. 전자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전 금	국정 81
	① 전자금융사기 예방	전금	국정 81, 업무 5-3 정상화 7-2 지시 14-32-13
Ⅲ.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소비자	국정 24-2 업무 5
	①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강화	소비자	국정 24-2-2 업무 5-1
	② 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중소	
	③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소단	국정 24-2-1 업무 5-2
	④ 신용정보보호 체계 개편	신정	정상화 7-5
2.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서 민	국정 30-2
	① 채무조정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서민	국정 30-1 지시 14-32-8
3.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서 민	국정 30
	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서민	국정 30-2 업무 4-1
Ⅳ.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자 본	국정 1
	① 창조경제 투자 활성화	자산	국정 1-3 지시 14-32-32
	②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자본	국정 1-1 업무 2-1
2.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구조개선	
	① 금융회사 회생·정리체계 개편	구조개선	
3. 자본시장의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공 정	국정 1-1
	①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공정	국정 1-2
	②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자본시장조사단	국정 1-1
	③ 자금세탁방지체계 고도화	FIU	국정 139-2

* 업무계획 두 번째 코드는 가나다를 1, 2, 3으로 표시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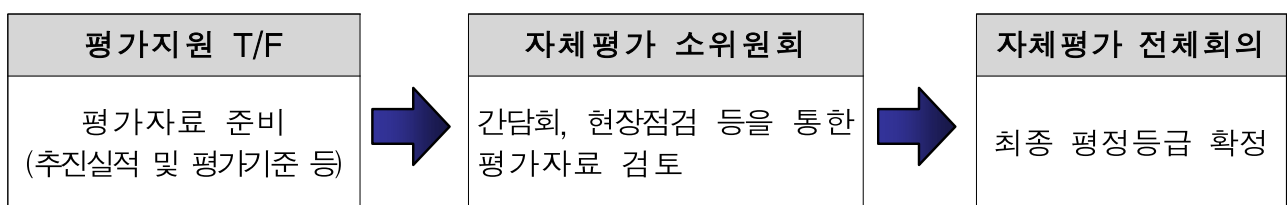
- ◇ 자체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략목표별 담당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 ◇ 체계적인 자체평가 지원을 통한 단계적 평가를 실시

□ 점검체계

- 자체평가위원회를 전략목표별 담당 소위원회로 구분 운영
 - 총 4개 전략목표를 각 소위별로 1개씩 담당
 - * 1소위(전략목표 I), 2소위(전략목표 II), 3소위(전략목표 III), 4소위(전략목표 IV)
- 각 소위별 평가지원 T/F*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과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
 - * 구성원 : 해당 전략목표 관련 주요 관리과제 담당자

□ 실적 점검 및 평가

- 매분기별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
 - 관리과제의 성과 달성도 향상을 위해 반기별 대면 또는 서면회의 실시
- 연 1회 자체평가 실시 ('15.1월)
 - 평가지원 TF로부터 소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로의 단계적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1단계 평가 기초자료 준비 (평가지원T/F) : 매 분기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를 중심으로 평가의 기초자료(주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분기별 추진실적)를 분기별로 작성
- 반기별 실적 점검으로 자체평가위원회의 정책 컨설팅 기능 강화

2단계 평가자료 준비 (평가지원T/F) : '15.10~11월

- 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방법(평가지표, 평가기준 등) 및 연간 주요 추진실적을 미리 배포

3단계 검토 및 1차평가 (소위원회) : '15.11~12월

- 평가자료를 토대로 자체평가 소위원회 회의(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별 기본 평가지침* 도출

* 예시 : 외생적 요인에 대한 평가반영 방법 등

- 소위원회별로 1차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4단계 평가점수 등 최종 확정 (전체회의) : '15.12~'16.1월

- 자체평가 전체회의에서 1차 자체평가보고서에 이견이 있는 부서에게 소명기회를 부여
 - 관리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점수 결정
- 동 절차를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평정점수 및 자체평가보고서 확정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 성과관리시행계획이 개인별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 ◇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기준, 인사, 조직 등에 반영

가. 격월로 추진실적 점검 및 feed-back 실시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 실적 점검회의를 통해 격월로 성과 관리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과제의 경우에는 추진을 독려
 - 평가회의에는 사무처장 및 소관 과제 담당 국장들이 참석함으로써 간부들의 관심도를 제고
 -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 실·국의 간부들이 함께 공유하여 실·국간 협력을 통해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 직원들의 담당업무 달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Brown Bag Meeting 등을 활용
 - 담당 과제 및 금융제도·현안에 대해 직원들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외부전문가들도 참석토록 하여 성과계획 달성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시성 있는 환류가 가능토록 함

다. 분야별 환류 방안

□ 인사

- 승진심사시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평가 우수자에 대한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실시
- 개별 평가분야 중 주요정책 등에 대한 성과평가 유공자에게 포상

□ 조직

-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분석하여 인력 감축 등 유동정원제 및 조직개편시 반영
-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내부 조직개편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
 - 특히, 사무처장 주재 업무추진 실적 점검회의(격월)를 통해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
 - 다만, 조직개편은 직제개편이 필요하므로 직제개편이 필요 없는 내부 태스크포스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

□ 성과급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의 기본 자료로 활용

□ 정책수립·집행

- 실적점검 및 평가 결과를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개선 유도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토록 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환류성을 강화
- 실패사례를 DB화한 실패정책은행 등의 운영을 통해 반복적인 시행착오 방지
- 평가결과 반영노력을 개인 성과평가에 연계하는 방안 강구

3. 변화관리 계획

가. 변화관리 전략 및 세부실천과제

□ 변화관리전략과 관리방향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 및 인사의 연계 고리 강화

○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업무 비효율 제거

○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시 학습시스템 구축

- 업권별 금융전문가 인재DB를 구축·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및 금융 포럼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 세부실천과제

① 성과관리시스템과 업무의 연계성 강화

- (교육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를 확산하여 성과주의 문화 정착
- (피드백 실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결과에 대한 상시적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결과에 반영

② 금융감독포탈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 (사용자 환경 개선) 사용자 편의성 강화 등 이용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시스템 만족도 제고
- (피드백 실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

③ 학습체계 내실화를 통한 업무 역량 증진

- (학습프로그램 다양화) 브라운 백 미팅(연간 10회 수준), 전문 교육기관 위탁(연중 수시) 등을 통한 업무 전문성 제고
- (학습 유인체계 구축) 학습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 조성

나. 성과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

□ 성과지표 관리 전담 TF를 구성·운영(연간)

-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을 성과지표 관리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전체 성과지표들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총괄
 - * 성과지표 달성정도를 업무실적 평가시 반영, 성과지표 수정·보완 시 총리실과의 조정 창구 역할 등
 - * 반기별로 TF 회의를 개최하여 성과지표의 중복을 해소하고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을 확보
- 정책목표별 총괄추진팀을 지정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성과지표 추진현황을 집중 관리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구성·운영

- **(추진배경)** 그간 창조경제 지원 및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이에 따라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구성('15.3.26)

※ 금융규제 개혁방안('15.3.17일)에서 현장점검반 운영계획을 既 발표

- **(구성)** 현장점검반은 4개 팀*, 25명으로 운영

* 은행·지주팀(총괄) / 비은행팀 / 금융투자팀 / 보험팀

-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 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

- **(운용)** 금융회사 등에 “미리 예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

- ① 금융회사 등의 부담이 되지 않고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 활용

* 현장방문 일주일 前 방문대상 사전통보, 실무진 직접 면담, 익명으로 의견 수렴(이메일 등 활용) 등 ⇒ 금융회사 의견 청취 후 확정

-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 마련

-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제기된 제안의 처리상황 및 결과는 신속히 피드백(필요시 현장 再방문 설명)

②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즉각 대응

(1)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2)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

-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에서 지원

(3)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하여 처리

○ **(향후계획)** 3월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

-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균형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전 금융회사(약 400개)** 방문을 추진
- 금융개혁 과제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이외에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실시

* 중소, 창업·벤처기업 및 핀테크기업, 기술금융이용자, 서민금융이용자 등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성과목표	13	16	3 (18.8%)	0 (0%)	5 (31.2%)	8 (50%)	12 (75.0%)
	관리과제	24	36	11 (30.5%)	0 (0%)	19 (52.8%)	6 (16.7%)	20 (55.6%)

* 총괄현황 서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 (통계관리를 위해 통일 필요)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고 창조금융을 활성화한다.						
1.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①고정금리대출 비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전체 주택담보대출(은행권)	25.0%	정량	결과	
	②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 전체 주택담보대출(은행권)	25.0%	정량	결과	
2. 기업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①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 평가 실시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평가 실시	평가 실시	정성	투입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①외화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	스트레스 자금잉여 = 완충자산 - 미래순현금유출	자금잉여 상태 유지	정성	결과	
4. 실물경제의 창조활력을 뒷받침한다.	①중소기업 기술신용대출 공급액	기관별 기술신용대출공급액 합산	20조원	정량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금융권의 경쟁촉진 환경을 조성한다.	①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여부	시스템 구축 완료	정성	투입	
	②유사보험 규제개선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비율	50%	정량	결과	
2. 미래 유망 금융서비스를 육성한다.	①전자금융업자 총매출액	매출액 합계	1조9260억원	정량	결과	
3. 전자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①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신규 발생 반기별 건수	금융회사 전수 조사	전년대비 3% 감소	정량	결과	
III.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①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노력	금융소비자 인식조사	20%	정량	결과	
2.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①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자 수	수혜자수 산출	4만명	정량	산출	
3.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①정책서민금융 수혜자 수	정책서민금융 수혜자 수	39만명	정량	산출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①기술가치평가 투자 펀드 조성규모	펀드 조성액	3,000억원	정량	산출	
	②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규모	펀드 조성액	5,100억원	정량	산출	
2.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①금융회사 회생·정리 체계 개편방안 마련	시범사업 실시 여부로 평가	RRP 시범사업 실시	정성	투입	
3. 자본시장의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①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	불공정거래 사건 증선위 의결 여부	월 7건 이상	정량	산출	

* 비고에는 성과지표의 특징으로서 국제평가지수 여부를 기재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고 창조금융을 활성화한다.							
1.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①고정금리대출 비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전체 주택 담보대출 (은행권)	25.0%	정량	결과	
		②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행권)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 전체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25.0%	정량	결과	
2. 기업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①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①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 실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 실시 여부	실시	정성	투입	
		②개별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4~6월)	개별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여부	실시	정성	투입	
		③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 여부(7~10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여부	실시	정성	투입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①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①외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결과	스트레스 자금잉여 = 완충자산 - 미래순현금유출	자금잉여상태 유지	정량	산출	
		② 기관별 리스크 점검 실적	개최실적	분기별 2회	정량	투입	
		③EWS, 외국인 자금 흐름 모니터링 실시	금융시장·금융산업 조기경보지수 산출	연 12회	정량	투입	
4. 실물경제의 창조활력을 뒷받침한다.							
	①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①중소기업 기술신용대출 공급액	기관별 기술신용대출공급액 합산	20조원	정량	결과	
	② 검사·제재 개선	①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검사횟수 확인	21회	정량	투입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해외 금융시장 개척 기반 마련	①MOU 체결	체결건수	5건	정량	산출	
		②신흥국 자문· 연수·포럼 등 실시	실시건수	6건	정량	투입	
	④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	①IR 개최 횟수	개최횟수	4회	정량	투입	
		②Fn Hub Korea Newsletter 발송	발송횟수	6회	정량	투입	

II.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금융권의 경쟁촉진 환경을 조성한다.

	①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①자동이체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여부	시스템 구축 완료	정성	투입	
	③ 불공정거래 제한 및 규제차익 해소	①유사보험 규제개선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비율	50%	정량	결과	

2. 미래 유망 금융서비스를 육성한다.

	① 핀테크산업 육성	①전자금융업자 총 매출액	매출액 합계	1조9,260억원	정량	결과	
	② 연금포털 구축	①종합연금포털 구 축	시스템 확인	포털 구축	정성	산출	

3. 전자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전자금융사기 예방	①대포통장 과다 발생 금융회사 개 선 명령	제도 시행 여부	제도 시행 여부	정성	산출	
		②텔레뱅킹 전화 지정제도 시행	제도 시행 여부	제도 시행 여부	정성	산출	

III.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①청약철회권 도입	발표	마련	정성	산출	
		②(가칭)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발표	마련	정성	산출	
		③금융교육 횟수	교육횟수	3100회	정량	투입	
	② 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①VAN사 및 카드단 말기 관련 규제 마련	시행령 등의 개정·시행	제도 개선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 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①불합리한 금융관행 조사 및 개선(공통)	발굴·개선된 관행의 수	19	정량	결과	
	④ 신용정보보호 체계 개편	①신용정보법 하위 법령 개정	개정 여부	개정	정성	산출	
		②신용정보 집중체 계 개편	마련여부	개편방안 마련	정성	산출	
2.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② 채무조정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①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자수	수혜자수	4만명	정량	산출	
3.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한다.							
	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①정책서민금융 수혜자수	수혜자수	39만명	정량	산출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 한다.							
1.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① 창조경제 투자 활성화	①기술가치평가 투 자펀드 조성규모	펀드 조성규모	3,000억원	정량	산출	
		②창조경제 혁신펀 드 조성규모	펀드 조성규모	3,000억원	정량	산출	
	②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①코넥스·장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 마련	정성	산출	
2.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① 금융회사 회생·정리 체계 개편	①금융회사 회생· 정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여부	시범사업 실시	정성	산출	
3. 자본시장의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①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①독자신용등급(자체 신용도) 제도 도입	제도 도입 여부	제도 도입	정성	산출	
	②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 래 근절	①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	불공정거래 사건 증선위 의결 여부	월 7건 이상	정량	산출	
	③ 자금세탁방지체계 고 도화	①특정 금융거래 보 고법 시행령 개정	개정 여부	개정	정성	산출	

*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와 공통지표인 경우에는 성과지표명 옆에 (공통)이라고 표시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고 창조금융을 활성화한다.		
1.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국정 38-1
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국정 38-1, 업무 7-1, 지시 14-32-30
2. 기업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①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업무 8-1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①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정 37-3, 업무 9-1,2
②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		업무 9-3
4. 실물경제의 창조활력을 뒷받침한다.		국정 1
①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국정 1-2, 핵심 13, 업무 2-2
② 검사·제재 개선		국정 28-5, 핵심 14, 업무 6-3
③ 해외 금융시장 개척 기반 마련		업무 3-3
II.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금융권의 경쟁촉진 환경을 조성한다.		국정 28
①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국정 28-3
② 불공정거래 제한 및 규제차익 해소		국정 28-2,4
2. 미래 유망 금융서비스를 육성한다.		
① 핀테크산업 육성		국정 1-5, 핵심 12, 업무 1-3, 지시 14-32-35
② 연금포털 구축		
3. 전자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국정 81
① 전자금융사기 예방		국정 81, 업무 5-3, 정상화 7-2, 지시 14-32-13
III.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정 24-2, 업무 5
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국정 24-2-2, 업무 5-1
② 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③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국정 24-2-1, 업무 5-2
④ 신용정보보호 체계 개편		정상화 7-5
2.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국정 30-2
① 채무조정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국정 30-1, 지시 14-32-8
3.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한다.		국정 30
①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국정 30-2, 업무 4-1
IV.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1.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		국정 1
① 창조경제 투자 활성화		국정 1-3, 지시 14-32-32
②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국정 1-1, 업무 2-1
2.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① 금융회사 회생·정리체계 개편		
3. 자본시장의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국정 1-1
①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국정 1-2
②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국정 1-1
③ 자금세탁방지체계 고도화		국정 139-2

*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에 과제코드 외에 과제명도 함께 기입